광주·전남 스타 2008 영광을 위하여

올림픽 2관왕 조준…광주체고 궁사 이 특 영

"오직 연습만이 정상 가는 지름길"

고1 때 태극마크…각종 국제대회 휩쓸어

하루 10시간 강훈 소화해내는 '연습벌레'

'올림픽 금과녁 정조준!'

'여궁사' 이특영(18·광주체고 3년)이 베이징 올림픽 양궁 금메달을 향한 활시위에 서서히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특영은 지난 2005년 광주체고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 된 후 4년동안 줄곧 한국 양궁의 대표주자로서 활약하면서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특영은 화순군 남면 출신으로 두암초등학교 4학년때 양궁 감독이던 정남진 담임교사의 눈에 띄어 양궁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동명중학교 2학년 때 전국소년체전 2관왕, 3학년 때는 3관왕을 거머쥐며 '신궁' 탄생을 예고했다.

광주체고에 진학 1학년 때 최연소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특영은 제4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우승, 사상 최연소(만 15세)로 세계대회를 제패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6년에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제2차, 4차 월드컵국제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획득했으며 제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에선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속사형' 활쏘기가 장점인 이특영은 세계 정상에 오른 자신의 노하우를 '남들보다 더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연습벌레다. 기존의 대표팀 연습외에도 팔굽혀펴기와 러닝은 자신만의 꾸준한 훈련 노하우다. 팔힘과 지구력을 기르는 데는 이만한 운동이 없기 때문.

이특영의 이같은 강한 의지는 초등학교부터 발견됐다.

이특영은 두암초등학교 시절 체구가 크지 않았고, 기대했던 만큼 실력이 늘지 않자 코치로부터 마라톤으로 전향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으나 절대로 양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텨 오늘날의 '신궁' 자리에 올랐다.

'타고난 천재형' 보다는 꾸준한 노력으로 정상을 일궈낸 것이다. 또한 이특영은 올해 졸업 후 광주시청 대표로 활약하게 돼 끈끈한 고향사랑의 정도 보여주었다.

한국체대와 광주시청 입단을 두고 고민했던 이특영은 오는 2월 졸업을 앞두고 전국 실업팀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모 대기업으로부터는 수억원대의 계약금을 제안받기도 했다. 하지만 고향팀의 성장을 위해 광주시청 입단을 선택했다.

"양궁에서 타고난 천재는 없고, 노력하는 천재만 있다"며 "모든 성적은 얼마만큼 훈련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특영의 목표는 베이징 올림픽 2관왕이다. 하루 10시간의 연습도 마다하지 않는 이특영은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올림픽대표팀 훈련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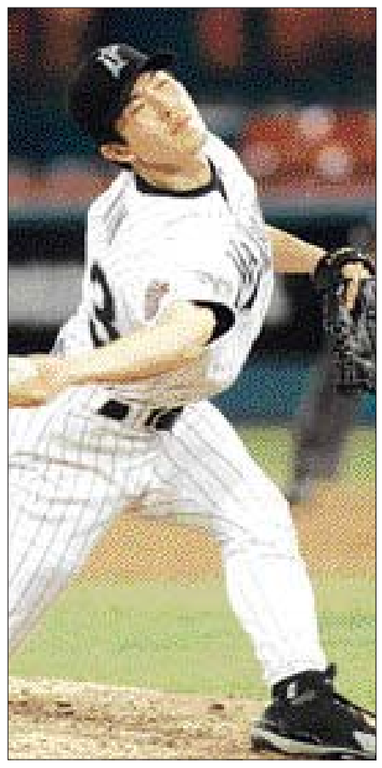
이특영은 "광주의 딸로 첫 올림픽 도전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A 김병현 새 둥지 어디로?

선발·불펜 등 전천후 투수

플로리다 잔류 가능성 커



2008 시즌부터 자유계약선수(FA)자격을 얻은 김병현(29·사진)이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해 그의 거취가 관심이다.

6일 현재 메이저리그 미계약 FA선수는 94명으로 투수는 김병현을 포함해 모두 41명. 약물파동으로 썰렁해진 FA시장과 지난 2006년부터 FA계약 시한이 없어지면서 김병현의 올 시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병현은 지난해 콜로라도에서 시즌을 시작해 플로리다에서 애리조나로, 그리고 다시 플로리다로 자리를 옮기며 방황했었다.

그 와중에 거둔 승수는 10승. 역대 최고의 승수를 쌓았던 만큼 올 시즌 최희섭·서재응 등이 빠진 빅 리그에서 유일한 코리안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꼽히고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는 5명 안팎이다.

메이저 통산 113승에 빛나는 박찬호(35)는 LA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 후 빅리그 재입성을 노리는 처지이며 백차승(28), 추신수(26), 류제국(25) 등도 당장 빅리그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핵 잠수함' 김병현에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현의 플로리다 잔류와 이적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잔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팀의 주축역할을 했던 투수 톤트렐 윌리스와 타자 미겔 카브레라를 디트로이트로 보내고 6명을 받는 등 트레이를 통한 팀을 재구성하고 있다.

선수층이 젊고 패기 넘치는 플로리다에서 선발과 불펜 모두 소화가능한 베테랑 김병현의 역할과 기대는 그 어느 팀보다 높다. 지역언론에서도 선발후보로 김병현을 언급하며 잔류 가능성을 점친 바 있다.

게다가 리반 에르난데스, 제프 위버 등 쟁쟁한 선수들이 남아있는 FA시장에서 들쭉날쭉한 투구를 보이는 김병현이 선발용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꾸준히 제기된 불펜으로 전환을 이룬다고 해도 FA를 선언한 특급 마무리와 셋업맨들이 대부분 계약을 마무리 지은 만큼 김병현이 새 둥지를 틀 수 있는 팀도 찾기 힘들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보면 김병현은 지난해 연봉(250만 달러)보다 깎인 금액에 플로리다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현이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선발과 불펜 어느 자리를 꿰차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예선 재경기 거부"

亞 핸드볼聯 "이미 치러진 경기 적절해"

한국 "스포츠중재 재판소 제소"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국제핸드볼연맹(IHF)의 결정을 거부했다.

AHF는 쿠웨이트에서 이사회를 열고 IHF가 결정한 올림픽 아시아 예선 재경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 통신이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AHF는 거부 이유로 "여러차례 IHF에 재경기를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미 치러진 예선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AHF는 이러한 결정을 IHF에 통보하는 한편 회원국에 재경기 주최 및 참가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AHF의 올림픽 예선 재경기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 IHF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재경기 개최를 결정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8월 여자 예선과 9월 남자 예선 당시 벌어진 중동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문제 삼으며 IHF에 재심을 요청한 결과였다.

정규오 대한핸드볼협회 국제팀장은 "재경기가 무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본과 힘을 합쳐 AHF에 투쟁한 결과로 재경기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7일 (월)

▲2008 PGA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FR (08 : 00·SBS골프·SBS 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우리은행〉(16 : 50), 〈KB국민은행 : 삼성생명〉(18 : 50·SBS 스포츠)

올림픽 야구 대륙별 PO

새 대표팀 명단 주중 윤곽

3월7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새 대표팀 명단이 내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는 5일 신년 하례식을 겸한 첫 모임을 갖고 대표팀 선수 선발과 훈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다음 주 투타 후보 선수 명단을 추린 뒤 김경문 대표팀 감독과 논의를 거쳐 14일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해 30~32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작년 아시아선수권에서는 마운드 운용을 책임졌던 선동열 코치의 주문에 따라 좌타자가 많은 일본전에 맞서기 위해 투수 엔트리 9명 중 좌투수를 5명이나 뽑았다.

위기에서 쉼없는 '돌려막기'로 공격의 맥을 끊어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는 작전이었으나 류현진과 박찬호 등 믿을 수 있는 선발투수 두 명을 대만전에 올인한 탓에 정작 일본전에서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3월에 티켓 3장을 놓고 한국과 경쟁할 나라로 대만,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이 꼽히는 데 라인업의 좌우 성향에 따라 마운드 구성도 작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내년 초 군 입대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218cm)이 올해 말과 내년 3월 사이 국방의 의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홍만 에이전트 박유현씨는 "최홍만이 올해는 운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 1월~3월 사이에 입대할 계획이다. 다만 입영통지서가 나오고 꼭 입대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올해 12월부터 군 복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 상반기 내로 최홍만에게 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박씨는 최홍만이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시기를 한 차례 조정해 입대 시기를 내년 초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홍만이 최소 내년 3월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다. 이후에는 모든 활동을 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만은 만 19세였던 1999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2007년부터 공익근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12월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